

24일 Market Index	
코스피	5553.92 (+148.17)
코스닥	1121.44 (+24.55)
금리 (연이자율)	3.523 (-0.094)
환율 (원/달러)	1494.00 (-23.30)

metro 경제

USD/KRW
1,495.30
Hana Bank
1500원 환율
정부 적극 개입
추가상승 경계
04

전쟁쇼크 반영 전인데... 기업 신용 줄하향 위기

닷새간 공격유예는 트럼프 기만전술?

중동전쟁 한달, 이란 항전 의지

중동 리스크 금융권 확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자 신용등급도미노 강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발 세계 경기 위축 공포에 글로벌 무역 및 관세 분쟁 지속,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현실화할 경우, 채무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다.

24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S&P가 평가하는 국내 기업(금융사 제외) 24개사 중 '부정적' 등급 전망은 21%(5곳)로 집계됐다. '긍정적' 전망은 8%(2곳)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보다 떨어질 곳이 더 많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3면>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가 보는 '부정적 전망'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지급능력평가 기준) 기업은 28개사나 된다. LG화학(AA+, 석유화학), 한화솔루션(AA-, 석유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AA-, 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 석유화학), 호텔신라(AA-, 면세), 현대엘리베이터(A+, 승강기), 포스코이앤씨(A+, 건설), HD현대케미칼(A0, 석유화학), SK아이이테크놀로지(A0, 2차전지소재), SK칼텍스(A0, 보안), 대우건설(A0, 건설) 등이다.

'하향 검토' 대상은 SK디앤디(BBB



본지 '100세 플러스 포럼' 성료

신금융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은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고승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회장(전 금융위원장), 이장규 메트로경제신문 대표이사,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택동 레이크투자자산 사장.

24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에서 주요 인사들이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윤종연 하나은행 PB팀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은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고승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회장(전 금융위원장), 이장규 메트로경제신문 대표이사,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택동 레이크투자자산 사장. /최규춘 기자 ch9720@

S&P·무디스, 포스코 주요 계열사 신용등급·전망 등 한단계 낮춰 '전쟁충격' 반영시 수출기업 중심 신용등급 하락 압력 더 커질 듯 정부 차원 보증 등 대책 마련해야

0, 부동산개발), SK실트론(A+, 반도체) 등 2곳이다.

경고음이 현실로 바뀐 곳도 있다. S&P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S&P와 무디스는 포

스코홀딩스·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하향했다. S&P는 중동전쟁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다"면서 "에너지가격 상승이나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산업(정유·화학 등)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발 '전쟁 충격'은 아직 신용부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금난에 무너지면, 그 부담이 결국 채권자와 금융사로 본격 전이될 수밖에 없어 파급력이 커진다"면서 "중동전쟁의

파장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만큼 정부 보증이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등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3.041%를 기록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3.523%로 확대됐다. 중동발 시장금리 상승은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A은행의 대기업 연체율은 0.4%로 2017년 3월(0.8%) 이후 최고치다. B은행의 고정 이하여신 규모는 1조 1250 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K-바이오 '블록버스터' 키운다... 창업부터 전주기 지원

제약바이오협회 합동 정책간담회 'K-바이오 성장 사다리' 구축 구상 혁신자금 공급 등 '4UP 전략' 추진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을 글로벌 수준의 '블록버스터' 창출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손을 잡고 창업부터 임상, 글로벌 진출에 이르는 전 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K-바이오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와 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



24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의 'K-제약바이오 창업과 성장' 발표회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말하고 있다.

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양 부처는 ▲혁신자금 공급(스케일업) ▲개방형 혁신과 성과 창출(스피드업) ▲혁신 생태계(테벨업) ▲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 설계(시너지업) 등 이른바

'4업 전략'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금 지원의 '연속성'이다. 중기부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팀스에 선정된 기업이 복지부의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패키지'나 '임상 R&D' 지원을 받을 때 별도의 중복 평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기술평가 기반의 맞춤형 보증을 공급해 벤처기업의 단기 유동성 애로를 완화하고, 중기부와 복지부의 정책펀드를 연계해 신약 개발 단계별로 끊김 없는 투자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도 강화한다. 미국 보스턴에 설립된 세계 최대 바이오 벤처 허브인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등 해외 유망 거점과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벤처와 제약사의 공동 R&D를 신선했다.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 협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협업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제약바이오 기술수출액 30조원을 실현하며 K바이오 의학 글로벌 5대 강국 진입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과 협력 파트너를 찾지 못해 성장이 더딘 경우가 많다"며 "국내 유망 벤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정부 "대전화재 신원확인 피해자 장례지원에 만전"
▲'충남지사 불출마' 문진석 "제게 보냈던 응원 양승조에게 보내달라" /사진 뉴시스

▲조국혁신당,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6명 발표... "부패 제로 선사"
▲이진숙 "대구시장 말고는 다른 생각 한 적 없어... 공천 배제 취소해달라"

▲김 총리, '아시아 다보스' 보아오포럼서 26일 영상 기조연설
▲국회 재경위,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인청보고서 채택